



PROJECT MUSE®

가

:

『

』

= A Transnational Adoptee ' s

Ambivalent Desire to Visit Her Birth Country: A Study on
Astrid Trotzig ' s *Blood is Thicker Than Water*

Jeongjun Park



Trans-Humanities Journal, Volume 8, Number 2, June 2015, pp. 169-199
(Article)

Published by University of Hawai'i Press

DOI: <https://doi.org/10.1353/trh.2015.0016>

➔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is article

<https://muse.jhu.edu/article/635447/summary>

국외 입양인의 한국기행에 나타난 양가적 욕망: 아스트리드 트로트지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중심으로

박정준 (중앙대학교)

I.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본고에서는 경계 위반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해 생각한다. 외국 아동들을 입양하는 아동 수용국에서는 고아로 살아가는 제3세계 아이들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곤 한다. 이러한 시각이 지배적인 서구에서 국외 입양은 고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수혜로 인식된다(Lind 87). 질병과 영양실조, 보살핌 부족으로 고통 받던 아이들이 입양되어서 순조롭게 성장한다고 보는 서구에서, 입양인들의 출생국 방문은 부정적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국가 간 이주가 늘며 혼종성을 가진 초국적 주체가 증가하는 시점에서도, 개개인의 정체성은 여전히 종족적 특성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¹ 단일민족 신화가 온존된 한국에서 민족정체성과 시민권, 에스니(ethnie)²

-
1. 아스트리드 트로트지(Astrid Trotzig)가 주축이 되어 한국 태생 입양인들의 수필을 엮어서 출판된 선집의 제목은 『제자리로 되돌아오다』(*Hitta hem*)이다. 이 선집에서 “제자리”의 의미는 다의적이다. 한국 태생 입양인들은 인종주의자들로부터 ‘출생국으로 되돌아가라’고 요구받기도 한다. 인종주의자들이 발화한 ‘고향’은 입양인이 생애 대부분을 보낸 입양국이 아닌 출생국을 지시한다. 하지만 입양인들이 출생국을 ‘고향’으로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2. 진태원은 근대 국가를 “공유된 신화와 기억, 대중적 공공 문화, 특정한 고토(故土), 경제적 단일성,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이름이 붙여진 인간집단”으로 정의한 앤

의 일치점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다민족사회로 변모 중인 한국에서 국민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변경인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거주기간 및 현재 거주 여부, 한국에 대한 귀속감, 에스니의 유사성 등 국민의 조건을 겸비하지 못한 이들은 ‘한국인’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반면, 한국인으로 포섭되는 입양인은 민족정체성에 대해 한국인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한다. 한국의 미디어에서 ‘한국인’으로 호명되기도 하는 입양인은 친생부모 찾기, 한국과의 관계 재개, 성공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재단된 후 국외 입양의 순기능과 역기능 증명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재현된다. 한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는 “입양아들”³⁾은 실제 입양인들과 차이를 노정한다. 이러한 시각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한국을 찾는 입양인들의 여행은 곡해되어서 전달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시점에서 본고는 한국인들이 연상하는 전형적인 입양인 상과 차별화된 입양인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입양인에게 한국이 담지하는 다층적 의미

서니 스미스(Anthony Smith)의 논의를 토대로 ‘에스니’를 설명한다. 고토를 점유하는 네이션과 달리, 에스니는 고토와 연결돼 있다. 이주 집단과 망명 집단까지 아우르는 에스니는 각자 분산된 영토에서 살아가되 동일한 혈통과 신화, 문화와 기억을 공유하는 집단을 포괄하는 명칭이다(진태원 178-80).

현금의 한국에서 국민됨(nationality)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은 내부 이방인(outsider within)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 여성은 한국인으로서는 국민권만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민족성과 에스니가 주류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소위 ‘재중동포’의 경우 국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에 노출돼 있다. 반면, 선진국 출신의 입양인은 ‘권리를 가질 권리’를 호소해야 할 여타 이주자와 사뭇 다른 지위를 한국에서 보장받는다. 능숙한 영어 구사력과 선진국 여권(국민권) 보유, ‘이국적인’(서구적인) 아비투스(habitus)를 체현하는 국외 입양인은 한국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포섭과 배제를 출생국과 입양국에서 체험하는 성인 입양인의 삶은 인종이나 권력관계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속성을 보여준다.

3. 성인 입양인들을 ‘입양아’로 호명하는 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입양인 작가 베티 진 리프턴(Betty Jean Lifton)은 “입양아는 결코 성인으로 클 수 없다. 어느 누가 성인 입양인(adopted adult)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Novy 23).

를 탐색한다. 한국 태생 스웨덴 입양인인 아스트리드 트롯찌(Astrid Trotzig)의 자전 소설은 국외 입양인이 출생국을 방문하는 이유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예증한다. 그의 한국 기행은 한국 독자들의 기대지평(Horizon of expectations)을 배반하는 측면이 있다. 두 차례의 한국 방문 중 친생가족을 찾지 않았던 그의 행보는 입양인들이 부모와 상봉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킨다(Kim 218).

본고에서는 작품의 ‘겉’ 읽기와 ‘속’ 읽기를 병행하여 표면적 서사에 감추어진 입양인의 복잡다단한 감정과 소통하는 기회를 모색한다. 본고는 자신에게 잠재된 한국적 정체성을 부인하기 위해 한국과 관련된 기호의 의미작용을 봉쇄하려는 그의 욕구가 좌절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러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의 글쓰기는 양가성으로 채워진다. 그의 작품의 겉과 속을 더불어 읽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입양인 한국 방문의 의도된 실패와 재방문이라는 모순적 양상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검토

트롯찌의 자전소설 『피는 물보다 진하다』(*Blod är tjockare än vatten*)는 한국어로 번역되는 등 스웨덴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⁴ 스웨덴에서 국외 입양인이 쓴 최초의 작품으로 손꼽힌 이 작품은 작가에게 문학상을 안겨주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많지

4. 트롯찌(1970~)는 자전소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로 데뷔한 이후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유색인종 입양인으로서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담아낸 작품들을 연달아 출간하였다. 그의 작품들 중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한국어로 번역돼 있다. Cf. 트롯찌, 아스트리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최선경 옮김. 서울: 석천미디어, 2001.

5. 트롯찌는 <라디오 스톡홀름>에서 수여한 '1996년 최고의 도서상'(Radio Stockholm's EVA-pris 1996 för Bästa Bok)을 받은 데 이어, 2003년에 일간지 <VI>가 수상한 문학상(Tidningen VI:s litteraturpris 2003)을 수상했다. 그는 2002년에 개최된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재방문했다.

않은 실정이다. 입양인 연구자⁶ 엘리 박 소른슨(Eli Park Sørensen)은 트롯씨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주목한다. 소른슨이 김 수 라스무슨(Kim Su Rasmussen)과 함께 발표한 글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에 나타난 작가의 유럽중심적 시각을 비판한다(Rasmussen and Sørensen 235). 이들은 트롯씨가 불과 2주간의 짧은 한국방문 이후 발표한 작품에서 한국을 주변화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후 소른슨은 이전 글과 상반되는 성격의 글을 발표했다(Sørensen 543–67). 이 글에서 소른슨은 트롯씨 작품의 양가성과 모순성을 입양인의 출생국 애착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로 분석하며 다시 읽는다.

이밖에 트롯씨의 작품에 나타난 인종주의 비판을 간과한 채 ‘뿌리 찾기’의 좌절에 국한하여 읽는 스웨덴 독자들의 수용현상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⁷ 더불어,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라는 이항대립적 모성에 집착하다가 중국에 ‘모성애’에 투영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간과하는 트롯씨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⁸ 이 연구들에서는 양면성이 두드러지는 트롯씨 작품이 소수자로서의 불안한 삶과 결부돼 있음을 추적하였다.

한편, 바르바라 잉베손(Barbara Yngvesson)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트롯씨의 자전소설을 해석한다(“Going ‘Home’” 17). 트롯씨가 한국에서 자

6. 입양인 연구자들은 입양인의 시각을 견지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리네 명(Lene Myong), 토비아스 뢰비네트(Tobias Hülbinette), 엘리 박 소른슨, 김 수 라스무슨, 엘리스 프레방(Elise Prébin), 아이노 린해욱(Aino Rinhaug), 김 박 넬슨(Kim Park Nelson), 다니엘 슈베크엔디크(Daniel Schwekendiek), 피터르 데익스트라(Peter Dijkstra) 등이 대표적인 한국 태생 입양인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입양인의 목소리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기되는 입양인들의 다양한 예술작품에 주목한다. 아직 ‘입양인 미학’의 위상은 탄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입양인 미학이 위상을 구축해나가는 데 입양인들의 활발한 비평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7. Cf. 박정준, 「국외입양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인종주의 문제」, 『비교문학』 65 (2015): 135–59.

8. Cf. 박정준, 「한국 태생 입양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모성의 해체와 재구성」, 『페미니즘연구』 15.1 (2015): 99–127.

신에게 잠재돼 있던 스웨덴적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데 주안점을 두는 잉베손은 이것을 입양인 출생국 방문의 전형적 결과로 분석한다.

II. 『피는 물보다 진하다』의 표면적 읽기

1. 불충분한 ‘구원’과 인종주의에 직면한 입양인의 삶

정체성 혼란 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입양인의 기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가의 서술방식과 국외 입양인의 성장과정에 대한 선이해가 요구된다.

이 작품에서는 이중적 글쓰기(double-writing)가 주목된다. 레오 슈트라우스(Leo Strauss)는 일군의 작가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 텍스트를 두 겹으로 써서 겉과 속이 상이하게 읽히는 창작방법을 계승해왔다고 주장한다(490). 넌지시 글쓰기(writing between the lines) 기법은 텍스트의 겉과 속을 정치(精緻)하게 읽는 예민한 독자의 독서를 통해 숨겨진 의미가 조명된다. 트롯찌는 입양국 문학장의 억압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해석되는 문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입양된 이후 스웨덴에서 살아온 트롯찌가 출생국을 찾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입양아들의 성장과정을 개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아들은 출생국과 친생부모⁹에 대한 애착을 끊고 입양국에 동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양부모 등에게 들으며 성장하기도 한다. 적응과 동화(assimilation)에 치중된 입양아의 유년시절은 출생국과의 단절을 초래한다. “백지상태”(tabula rasa)에 가까운 유아를 입양해서 순조롭게 양육하기를 바라는 양부모들은 입양아가 입양되기 전 삶과 “완전한 단절”(clean break)을 이루기를 바란다(Yngvesson, *Belonging* 19). 반면, 예외가 되

9. 입양인의 부모들은 각각 ‘친생부모’(birth parents)와 ‘입양부모’(adoptive parents)로 호명된다. ‘생모’와 ‘양모’와 같은 단어들이 비교적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

는 시기가 인간에게 없다고 일축하는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입양되기 전 시간도 아이에게 중요한 흔적을 남긴다고 주장한다(박선영 66).

씨그네 호벨(Signe Howell)은 친족관계(kinship)를 상실해서 입양될 처지의 아이들이 공동체와 시민권, 출생국 언어, 민족정체성을 빼앗길 위기에 직면한다고 지적한다(48). ‘사회적 나체 상태’에 처한 ‘벌거벗겨진’ 상태의 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일 아이가 입양되어서 새로운 친족 관계에 편입되면 사회적으로 다시 옷을 입게 된다. 다만, 아이가 ‘입양’이라는 옷을 착용한 대가는 입양되기 전 벗겨진 옷을 재차 입지 않으며 새 옷만 입어야 한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새라 K. 도로우(Sara K. Dorow)는 아이의 위치를 중심으로 입양과정을 고찰한다(5). 가족과 헤어진 아이는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축출되며 탈구(dislocation)된다. 소외로 점철된 아이는 비혈연 가정에 재배치(relocation)된다.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이별로 인해 중단된 가족애를 아이들이 새로운 친족관계에서 대신 받게 해준다.

하지만 유색인종 입양아들은 성장기에 크게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한다. 첫째, ‘비유럽적 신체’로 인해 아시아인으로 재인종화(reracialization)¹⁰되는 입양아들은 입양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일례로, 유색인종 입양아들은 백인 양부모에 의해 ‘명예 백인’(honorary white)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획득한다. 클라우디아 까스파네다(Claudia Castañeda)는 외국아동을 입양한 입양자들(adopters)이 아이의 타자성을 단기간에 제거하는 데 치중한다고 분석한다(91). 외국인 같은 인종적 타자를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양부모들은 아이에게 자의적으로 인종을 할당한다(Howell 68). 양부모들에게 유색인종 아이의 이주과

10. 재인종화는 메트로폴리스 내의 소수종족 주체를 출생국 구성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일컫는다(이석구 263-64). 언젠가 출생국으로 복귀할 이방인으로 대우하는 재인종화로 인해, 아시아 태생 스웨덴인들은 ‘스웨덴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이고 ‘아시아인’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정은 초인종적(transracial) 입양의 성격이 도외시된 채 국외입양에 국한되어서 이해된다. 양부모는 아이의 인종이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아이의 피부색이 하얘졌다고 상상하는 양부모의 만족감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부모가 자의적으로 부여한 인종은 집 밖에서 인정(recognition)받지 못한다. 마크 C. 제룽(Mark C. Jerng)은 입양아들이 입양된 이후 수차례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186). 사람들마다 입양아들을 다르게 인식하면서 입양아의 인종을 둘러싼 경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유색인종 입양아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배려하지 않는 양부모들로 인해 입양아들은 자신의 지위를 불안해할 수 있다. 낸시 N. 베리에(Nancy N. Verrier)는 친생부모와 헤어진 상처가 입양아들에게 단계적으로 심화된다고 주장한다(73). 베리에는 생모와 유아 사이의 관계 연속성이 깨진 것을 “깨진 접시”(59)에 빗대어 설명한다. 양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조차 접시가 재차 깨질 수 있다는 염려를 놓지 못한다. 국외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이별 이후 아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집 밖에서 이민자로 오인 받는 인종화(racialization)¹¹나 불충분한 ‘구원’¹²은 입양아들에게 지속적인 고난을 안겨준다. 이러한 불안은 자신의 삶

11. 입양인들은 서구에서 일상적 인종주의, 재인종화, 이민자로 오인되는 현상 및 입양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Yngvesson, *Belonging* 101), 백인들과 다른 ‘몸’으로 인한 불편 등에 직면해 있다.
12. 백인 양부모와 살아가는 입양아의 삶을 ‘감정노동’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데이빗 L. 엥(David L. Eng)이나 엘레이나 킴(Eleena J. Kim), 리네 명 등의 연구자들은 유색인종 입양아들이 인종주의에 대해 침묵하도록 유도 받는 점, ‘인류애를 표방한 선행’인 입양에 결코 보아야 한다는 압박, 국외입양이나 인종화된 삶에서 불거진 인종적 우울증(racial melancholia)을 양부모에게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는 중압감, 양부모가 친생가족 중 자신만을 ‘구원’한 것을 타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따르는 것을 감정노동으로 규정한다. 데이빗 엥이 지적한 ‘친밀성 속의 인종화’(racialization of intimacy)는 양부모와 자식 간의 인종 차이를 외면한 채 유색인종 입양아를 백인으로 취급하는 양부모의 태도를 가리킨다(Eng 109-10; Kim 118; Myong and Petersen 10).

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부추겨서 출생국 방문을 유도한다.

2. 입양인의 환멸의 한국 방문

스웨덴에서 이민자 취급을 받아온 트롯찌는 한국 여행에 대한 절실한 동기를 토로한다. 그러나 그의 한국행은 통상적인 귀환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 여행 이후 그는 ‘마음으로 낳은 사랑’이라는 입양을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보다 경시했던 관점을 수정한다. 한국방문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트롯찌는 입양국¹³에서 확보한 가치를 재발견한다. 여행 직후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일거에 부정되며, 역으로 스웨덴 사회에 대한 트롯찌의 인식은 미화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뿌리 찾기’(roots trip)의 좌절은 부정적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트롯찌는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정점에 다다른 20대 중반에 한국행을 실행한다. 그는 운동시합을 관전할 때 한국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을 항용 유지한다. 그는 한국에서 동일인종인 한국인들에 둘러싸이길 염원한다. 그는 한국에서 익명성을 누리며 인종적 소수자라는 표식을 소거하기를 갈망한다. 출국 전 트롯찌는 입양된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여행에 고무돼 있다.

나는 그 나라를 동경한다. 그 땅을 걷기를 갈망한다. 내가 태어난 도시에
서. 나는 나와 닮은 사람들을 동경한다. 한국인들, 내가 말했어야 할 언
어를 쓰는 사람들. 내가 가야만 했던 거리들을 걷는 사람들. 내가 호흡해
야 할 공기를 마시기 위해. 그들은 나처럼 생겼다.

13. 외국 아동을 입양하는 나라들을 ‘아동수용국’(receiving country)으로 부른다. 반면, 자국의 아이들을 외국에 입양 보내는 국가들은 ‘아동송출국’(sending country)으로 불린다. 한편, 입양인의 기준에서 입양되기 전 살았던 나라는 출생국(birth country), 입양된 이후 살아가는 나라는 입양국(adoptive country)이 된다.

Jag längtar till det landet. Längtar efter att få gå på den jorden, i den staden där jag är född. Jag längtar till de människor som ser ut som jag. sydkoreanerna, som talar det språk jag borde tala. Som går på de gator där jag borde gå. Som andas den luft jag borde inandas. Som ser ut som jag. (Trotzig, *Blod* 118)

그러나 트롯씨는 한국에서 예기치 않은 시련에 직면한다. 양질의 복지로 윤택한 삶을 누리는 스웨덴인과 다른 당대 한국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남루한 삶을 그는 서구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에게 비친 한국인은 여러 모로 스웨덴인보다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다. 그의 방한 중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한국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으로 그에게 각인된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 그는 사진을 찍지 않는 등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추억으로 남기려 하지 않는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인들과 일체감을 느끼려던 계획을 그는 도착 직후 수정한다. 한국 군중 속으로 흡수되기를 거부하는 트롯씨는 한국에서 유럽 출신 관광객으로 행동한다. 그는 스웨덴에서 인종주의를 모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아시아 출신 관광객으로 패싱해왔다.¹⁴ 그는 스웨덴에서 외국인 관광객

14. 유색 인종의 백인 행세를 ‘패싱’(passing)이라 일컫는다. 혼혈인들과 달리 화장이나 염색을 통해 백인으로 위장할 수 없는 트롯씨는 스웨덴에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행세하며 인종주의 공격을 모면하려 한다.

인종적 경계인은 백인의 동작이나 취미, 말투, 화장법 등을 의도적으로 흉내 내서 ‘백인’으로 인식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성공적인 ‘패싱’을 통해 ‘흑인(혼혈인)’이 아닌 기득권을 가진 ‘백인’으로 인식된다. 백인 행세를 하는 이들은 영구 착용의 의무가 없이 수시로 벗고 쓸 수 있는 백색의 가면을 필요에 따라 착용한다. 다수자로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패싱하는 이들은 인종적 소수자가 상시적으로 직면하는 각종 불이익에서 면제된다. 다만, 패싱은 인종 성형수술이 아니라 일종의 수행성(연기)이자 가면을 통한 은폐이기에 한계를 노정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패싱을 체현하는 이들의 신체는 불분명한 양가성을 띠며 완전한 백인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백인이자 유색인종이기도 한 복수정체성을 갖기보다, 궁극적으로 특정한 인종적 정체성에 수렴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다. Cf. Ahmed, Sara. “‘She’ll Wake Up One of These Days and Find She’s Turned into a Nigger’: Passing

으로 쉽사리 위장할 수 있었다. 반면, 트롯씨는 ‘전형적인 한국인’다운 외모로 인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오인된다.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다.

내가 한국의 시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잠에 빠진다. 나는 이번 여행을 잠으로 채우고 싶다.

Seoul är ingen vacker stad.

Jag vet att jag borde hålla mig vaken för att komma in i den koreanska dygnsrytmen, men jag somnar direkt. Jag vill sova bort den här resan. (Trotzig, *Blod* 169)

한국에서 보내야 하는 일정을 교육지책으로 소화하는 그는 귀국을 간절히 원한다. 트롯씨는 한국에서 “집에 가기를 바라”(Jag vill hem)(*Blod* 211)며 수면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그는 짧은 일정을 강조하며 한국의 시차에 맞추어서 수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한국화되기를 거부하는 그의 몸짓은 시차적응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시화된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낮잠을 청하며 깨어있는 시간을 감소시키려 한다.

트롯씨는 한국에서 불상사를 겪으며 자신에게 잠재돼 있던 스웨덴적 정체성을 비로소 발견한다. 그는 한국에서 음식을 먹을 때조차 스웨덴적 특질을 갈구한다. “진짜 커피와 콘숨 슈퍼마켓에서 파는 치즈가 가미된 호밀 빵을 먹고 싶”(Jag längtar efter riktigt kaffe, och ost Konsums kavring)(*Blod* 198)은 그에게 한국의 문화는 스웨덴 문화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비교된다. 그는 까마귀로 뒤덮인 섬의 쓰레기더미를 지나다니는 쥐와 “파시

through Hybridity.” *Theory, Culture & Society* 16 (1999): 86–106.

스트적”(187)¹⁵으로 보이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외관, ‘조악한’ 공예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혐오스럽게 바라본다.

이러한 두렵고도 낯선(unheimlich) 한국의 풍경은 한국 진입을 차단하는 빌미가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unheimlich’라는 단어를 가리켜 “섬뜩함이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것, 이미 오래 전부터 친근했던 것으로 소급되는 그런 종류의 무서움”으로 정의한다(재인용. 남정애 90). 프로이트는 섬뜩한 감정이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예전부터 친근한 것인데, 다만 억압과정을 거쳐 낯설어진 것”(재인용. 남정애 91)이라며 그러한 감정이 예기치 않게 느껴질 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트롯찌에게는 출생국에 관한 애정을 철회할 것을 명하는 대타자의 목소리가 거세위협으로 잠재해 있다. ‘아버이’(양부모, 입양국)의 지시(‘출생국에 가서 진실을 찾지 말라’)를 위반하면 처벌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한국과 친생부모에 대한 관심을 은폐한다. 트롯찌에게 한국은 사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금지된 기호이다. 징벌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롯찌는 한국에 거리감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롯찌가 마침내 한국행을 결행한 것은 그 자체가 위반과 해방의 성격을 내포한다.¹⁶

출생의 비밀을 파헤쳤다가 파국을 맞는 오이디푸스처럼, 입양인들은 입양되기 전 시간을 탐색하는 것이 현명한지 망설인다(Rasmussen and Sørensen 306). 입양인들은 진실을 터득한 대가로 소중한 것을 상실할까 우려한다. 적지 않은 입양인들은 ‘뿌리 찾기’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채 진실을 물어두려 한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입양인들은 한국에서 가

15. “건물은 굉장했고 인상적이었으나, 파시스트적 건축물에는 무엇인가 섬뜩한 것이 담겨있었다”(Byggnaden är enorm, imponerande, men det finns samtidigt något skrämmande över dess fascistiska arkitektur)(필자 강조).

16. 입양인 연구자 마리앤 노비(Marianne Novy)는 어린 시절에 입양되었다는 점은 수동적 운명을 뜻하는 데 반해서, 친부모를 찾는 입양인의 결정은 ‘선택’에 의거한 능동적 행위라고 대조한다(3).

급적 장기간 체류하지 않으려 한다. 입양인 작가들은 대체로 비교적 짧은 기간 한국을 여행하며 겪은 일화들을 중심으로 기행을 서술한다.¹⁷ 트롯찌 역시 2주 동안 한국을 여행하며 체험한 우여곡절을 중심으로 작품을 서술한다. 일군의 입양인 작가들이 한국에서의 단기간 체험을 기행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한국이라는 기표의 미끄러짐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내재해 있다. 이들에게 출생국 방문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유사하다. ‘실재’를 직시하고 싶지 않은 입양인들은 입양되기 전 기억을 선택적으로 복원하려 한다.

한국에 관한 나의 지식은 지극히 제한돼 있다. 나는 더욱 알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나는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터이다. 내가 너무 많이 삼켜버리지 않을지 모르겠다.

Min kunskaper om Sydkorea är mycket begränsade. Jag borde veta mycket mer. Men jag vill inte, vågar inte. Jag vet inte om jag skulle uppslukas alltför mycket. (*Blod* 115)

한국에 대한 복잡다단한 감정을 수습하지 못하자 트롯찌는 한국 탐색을 보류한다. 출생국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작용에 대한 경계와 불안은 그만큼 한국이 각별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한국이라는 기호가 자유분방하게 산종(dissemination)하기를 억압하는 그의 심리를 보여준다.

17. 한편,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나 제니퍼 쿼 님스(Jennifer Kwon Dobbs), 마야 리 랑와드(Maja Lee Langvad), 윤주희와 같은 입양인 작가들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체험을 글쓰기에 담아내며 소위 ‘동화의 단계’에 속한 작가들과 대조를 이룬다.

나는 스웨덴에 되돌아가기를 고대했다. 나는 종종 집을 그리워했다. 한국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나는 돌아가기를 고대했다. 아마도 나는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한국에서) 확인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Jag läntar inte tillbaka. Däremot längtade jag ofta hem, I Sydkorea framstod allt så tydligt. Jag anade det, Möjligen sökte jag bekräftelse på det. (Trotzig, *Blod* 278)

마크 오제(Marc Augé)의 ‘무장소성’(non-places) 개념을 전유한 일레이나 킴(Eleena J. Kim)은 입양인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일시적으로 보내는 시공간이 실제 삶과 괴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46). 입양인들의 작품에서는 ‘집-집 밖-집’을 순회하는 이동경로가 보편적이다(Sørensen 559). 입양인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집’(입양국)을 떠나서 ‘집 밖’인 한국에 단기 체류한 뒤 한결 완숙해진 자아를 재구축해서 ‘집’(입양국)으로 복귀하는 전개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여행의 최종 목적은 ‘집’에 대한 귀속감이자 ‘집밖’에 대한 출가 욕구를 정리하는 데 있다. 한국여행 이후 입양국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며 “유럽인”이 된 입양인들처럼, 트롯씨는 스웨덴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행 목적을 술회한다. 이렇듯 입양인 한국방문에는 출생국에 대한 단절과 입양국 동화를 이루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하다.

트롯씨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며 한국과 절연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기행(紀行)을 기록한 일기장을 분실해서 한국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분실물을 찾으려던 그는 수첩을 돌려받지 못하자 망연자실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기장을 습득했을 이가 스웨덴어로 쓰인 텍스트를 해독할 수 없다는 점에 안도한다. 트롯씨가 스웨덴어로 쓴 기행문은 한국인들이 보아서는 안 될 금서이자 복자(伏字)가 되어서 읽을 수 없는 기호가 된다. 트롯씨는 한국적 분신을 출생국에 남겨두지 않은 채 서둘러 스웨덴에 복귀한다. ‘박서여’(트롯씨의 입양서류에 기입된 한국명)라는 아

이의 존재는 입양 직후 사라졌기에, 그는 한국에 자신의 분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자신이 찾아야 할 가족이나 분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그는 출생국에 대한 애착을 끊으려 한다. 이 작품에 나타난 입양 인처럼, 한국과 거리감을 형성하는 국외 입양인들이 실제로 드물지 않고 논해진다.¹⁸ ‘유럽인’이 된 입양인들과 유사하게 트롯찌에게 한국 여행은 현실적 선택을 안겨준다. 그는 한국에서 백인성(whiteness)을 수행함으로써 마침내 ‘스웨덴인’이 된다.¹⁹ 그는 일각에서 자신을 스웨덴인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생을 스웨덴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자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던 트롯찌는 탈영토화된 삶의 위기를 해결할 묘안을 찾지 못한다. 그는 한국에서 패싱할 필요 없이 ‘내부자’(한국인)로 포섭되었지만 한국적 정체성을 스스로 거부하며 결국 ‘집’을 얻지 못하게 된다. 소위 “100% 스웨덴인”²⁰(Trotzig, *Blod* 94)이 아님을 증좌하는 몸으로 인해 스웨덴적 정체성을 부정 받던 트롯찌는 확연한 ‘비유럽적 신체’로 인해 출생국에서 탈구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그의 한

18. 오눈드 브로트바이트(Ånund Brottveit)는 한국 태생 입양인 대부분은 한국적 정체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입양인들 중 상당수가 여타 백인들과 자신들이 ‘거의 똑같다’고 여긴다는 점을 밝힌다. 한국에 방문해서 친생부모를 찾는 데 소극적인 이들은 인종적 동일성을 능가한 유사성을 한국인들에게서 찾지 못한 데 낙담해서 자신이 ‘노르웨이인’임을 확신하기도 한다(재인용, Sloth 255).

19.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과정에서 진보적 성향의 캐나다 백인 페미니스트들은 은연중에 ‘백인성’을 체현한다. 이민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이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인종주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이들의 ‘선한’ 행위는 19세기 백인 중산층 가정의 ‘집안의 천사’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측면이 있다. 백인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행동하는 과정에서, 소수인종 여성들은 ‘선한’ 백인 여성들과 차별화된 위상을 부여받는다(Srivastava 29-62).

일면 제국주의적 시각 속에서 트롯찌의 텍스트에서는 한국에 대한 타자화와 과장된 공포, 스웨덴(서구)과 백인에 대한 이상화, 자신을 스웨덴으로 이산시킨 국외입양에 대한 호의적 가치평가를 통해 백인성이 가시화된다. 트롯찌가 자신의 근원이기도 한 한국에 대해 가차 없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데는,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 ‘상징적 백인’으로서 서구에 정주한다는 인식이 작용한다.

20. “나는 결코 ‘100% 스웨덴인’은 되지 않는다”(Jag blir aldrig “100% svensk”).

국여행은 ‘양부모들’의 우려대로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종결된다(Homans 11). 그는 입양국과 출생국 중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한 채 이방인(“어리숙한 관광객”)²¹으로 남는다. 국적 없는 여행객으로 얼핏 난민과 유사해진 그는 “특권을 소유한 이민자”(Eng 7)인 입양인으로 복귀한다.

트롯찌는 일상적 인종주의(everyday racism)²²와 양모와의 갈등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낀다. 포부를 갖고 실행한 한국 방문은 그에게 실망과 환멸을 안겨준다. 한국에 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하려는 의도대로 그는 한국에서 거리감을 느낀다. 이러한 모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한국에서 섬뜩한 감정을 느끼며 대타자의 분부대로 ‘뿌리 찾기’에 좌절한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웠던 한국 여행은 그에게 좀 더 나은 한국 여행을 위한 꿈을 자극한다. 후술할 장에서는 표면적으로 ‘실패’한 한국행으로 보였던 체험들이 긍정적 가능성을 암시하는 면면들을 살펴본다.

III. 『피는 물보다 진하다』 심층적 읽기

1. 입양인 출생국 방문에 대한 입양국의 시각

본 절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 작품에 내재된 긍정적 요소를 살펴본다. 트롯찌의 작품은 입양인이 출생국에서 자신의 근원에 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보

21. “나 자신을 공격과 질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리숙한 관광객**으로 행세한다”(För att skydda mig mot påhopp och frågor låtsas jag ibland att jag är en *förrvirrad turist*)(60, 필자 강조).

22. ‘고전적’ 인종주의와 다른 새로운 인종주의가 서구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상적 인종주의는 차별로 인식되지 않기에 피해상황이 간과된다. 서구사회에서 출생국에 의거해서 소위 “진짜 유럽인”과 “가짜 유럽인”을 구분하는 시각(Essed and Trienekens 57-60)이나 유색인종 여성들을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자(‘태국여자’)로 일반화하는 성애화된 이국화(Kim 164), 남성 입양인들을 중성적 젠더로 인식하는 문화, 익명화된 공간에서 입양인들이 이민자로 오인돼서 차별에 직면하는 현상들은 일상적 인종주의의 실례들이다.

인다. 트롯씨는 친생부모와 재회하지 않았으며, 인종적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과 혼연일체가 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뿌리’에 관한 실마리도 풀지 못했고, 한국에 재정착(reimmigration)하고 싶다는 열망도 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좌절로 귀결된 그의 한국행은 긍정적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의 함의를 알기 위해 입양인들의 출생국 방문에 대한 비평 관점을 개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는 입양인의 출생국 방문에 대한 양부모의 입장이 담겨 있다. 마거릿 호만스(Margaret Homans)와 잉베쏬, 빈센트 쉹(Vincent Cheng) 등은 입양인들의 출생국 방문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호만스는 진실을 찾는 오이디푸스의 고행에 매료되어서 출생국 방문을 이상화하는 입양인들을 우려한다(Homans 4-26). 호만스는 출생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이 인지할 만한 서사들이 보통 허구로 구성된다고 일축한다. 그는 입양인들이 진짜처럼 보이는 허구적 기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만큼 출생국에서 잃어버린 기원을 복원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바바라 멜로쉬(Barbara Melosh)는 입양인들이 원하는 대로 진실이 명쾌하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228-29). 입양인들의 출생국이 현재 거주 국가가 아닌 ‘먼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입양인들이 입양되기 전의 과거를 명료하게 확인할 만한 ‘그곳’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멜로쉬는 주장한다.

잉베쏬는 입양인들이 입양으로 인해 상실한 자신의 과거가 ‘그곳(출생국)’에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고 분석한다. 출생국에 방문해서 입양 파일과 서류, 적절한 조력자를 구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리라고 입양인들은 믿는다. 그러나 입양인들은 출생국에서 자신의 근원에 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며, 무엇인가를 얻더라도 그것을 통해 참다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는 스웨덴 입양인들이 출생국 방문 이후 외려 스웨덴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출생국에 거리를 두는 것을 목도한다(Yngvesson, “Going ‘Home’” 32). 쉹은 ‘입양인들이 (출생국

에서) 무엇을 찾는가? 혈통? 정체성? 출생국에서는 입양인들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가?’라고 반문한다(67). 첵은 입양국에서의 생애 경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입양인들은 출생국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호만스와 잉베손, 첵과 같은 비입양인 연구자들이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소른슨은 반론을 제기한다. 소른슨은 위의 연구자들이 입양인들의 출생국 방문에 회의적인 원인이 입양한 자식들의 출가를 염려하는 양부모의 불안 탓이라고 지적한다. 입양아가 언젠가 집을 떠나서 친생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부모들이 입양아들에게 출생국이 갖는 중요성을 외면한다고 소른슨은 지적한다(556). 소른슨은 실제 양부모들이기도 한 위의 연구자들이 입양인들의 표면적 말화에 과도하게 주목한 결과 작품에 숨겨진 위반 욕구와 출생국에 대한 애착을 미처 간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557).

2. 입양인의 끝나지 않은 한국 탐색

트롯씨의 자전소설은 서구에서 성장한 입양인이 더 이상 출생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양인이 직접 고백한다. 소른슨과 라스무슨은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탈식민주의 이론을 원용해서 입양인들의 작품 경향을 분류한다(312-14).²³ 이 중 ‘동화의 단계’에 속한 입양인 작가들은 한국 체류기간 중 한국 사회를 피상적으로 관찰하며 자신에게 한국적 정체성이 희박하다고 절감한다. 트롯씨는 유럽 중심적 시각이 내재화된 ‘동화의 단계’에 속한 작가로 평가된다(Rasmussen and Sørensen 313).

그러나 이후 소른슨은 트롯씨의 작품이 제목에서부터 주제의식까지 양가성으로 채워진 결과 다의적 해석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데 착안해서 재

23. 이들은 입양인 작가들을 각각 동화의 단계(the phase of assimilation; 한국적 정체성 부인 및 입양국 정체성 강화)와 양가적 단계(the phase of ambivalence), 행동주의 단계(the phase of activism; 전투문학을 지향하며 한국적 정체성에 관한 진전된 관점 개시)로 분류한다.

독해한다(543-66). 그는 트롯씨의 작품에서 기존에 간과되었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트롯씨는 한국을 기원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그에게는 주류 독자들(비입양인 백인들)이 선호하는 입양 서사를 써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잠재해 있다. 비입양인들(양부모들과 비입양인, 입양전문가들, 입양기관 등)의 영향력이 강한 문학장에서 입양인 작가들은 억압을 경험할 수 있다.²⁴ ‘거의 우리(백인들)에 가까운 입양인’과 ‘거의 외국인(이민자)에 가까운 그들’이라는 호명 사이에서, 트롯씨는 다수자로서의 주체를 원한다.

외관상 ‘뿌리 찾기’에 좌절한 트롯씨는 스웨덴 사회 편입을 공고히 한다. ‘집 밖’(한국)에 체류할 때 한국에 재차 방문할 일이 없다고 다짐하던 트롯씨는 귀국 후 ‘집’(스웨덴)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국과 대별되는 스웨덴의 가치들은 스웨덴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양모와의 불화, 인종화 된 삶의 조건으로 인한 인종차별, 입양인으로서의 고충을 침묵해야 하는 억압 등을 떠올리며,²⁵ 그는 안락한 ‘집’이 없다는 현실을 상기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백인성을 체현한 그는 변화하지 않은 ‘비유럽적 신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다. 스웨덴 사회는 그에게 완전한 소속감을 부여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람의 민족정체성과 시민권을 규정하는 데 생물학적 결정론이 온존한 스웨덴에서, 그는

24. 트롯씨의 작품은 겉과 속이 다르게 읽히는 이중적 글쓰기 양상,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모순적이고 모호한 서술, 1부와 2부에서 각각 자신이 기반한 두 개의 국민국가를 낯설게 바라본 점처럼 다른 입양인들의 작품들과 차별화된 면모를 갖추고 있다.

25. 트롯씨는 입양인이 국외입양에 관해 말하려 할 때 비입양인들이 선입견으로 오해하는 풍토를 우려한다. 그는 입양에 관한 문제의식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한국 출신 입양인들을 남매로 둔 트롯씨는 입양에 관해 남매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자 상심한다. 트롯씨는 “아니다. 당신은 입양되었다는 것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는 데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은 입양에 관해 논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Nej, man kan inte skylla allt på att man är adopterad, men måste det innebära att man överhuvudtaget aldrig talar om adoption?)(*Blod* 102)라고 주장한다. 국외입양에 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억압되는 현실에서, 트롯씨는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서사화했다.

‘스웨덴인’이 아닌 아시아 출신 이민자로 오인된 경험이 있다.²⁶ 그는 한국과 스웨덴을 가로지르며 어디에도 적확하게 소속되지 못하는 변경인으로 남는다. 입양국과 출생국 중 어느 곳도 그의 고향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두 개의 국민국가 모두 트룟씨에게 ‘집’과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나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한국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수없이 미워했다. 나는 이번 한국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이, 내가 다시 한국에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Många gånger under resan hatade jag allt och alla, kände att det var första och sista gången. Men lika många gånger kände jag en viss het om att jag alltid kommer att vilja resa tillbaka. (Blod 281)

애매모호하게 해석되는 위의 인용문을 접한 독자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여행 이후 트룟씨에게 왜 변함없이 한국이 중요한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여행을 마친 그는 한국에 재방문할 일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로운 한국 방문을 타진한다. 이렇듯 이 작품의 문장 형태는 트룟씨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반영한다. 이 작품에서는 불쾌했던 경험이 서술된 문장 뒤에 앞문장과 상이한 의미를 지닌 문장이 대조적으로 이어진다. 구조주의적 불변체처럼 ‘반복’되는 이 작품의 문체론적 특성은 독자들이 양

26. 입양인들은 민족국가인 북유럽에서 외관상 ‘북유럽인’이 아닌 이민자로 자주 오인된다. 인류학자 운니 비칸(Unni Wikan)은 생득적 특성이 강한 노르웨이적 정체성을 이민자들이 후천적으로 갖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북유럽의 백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백인들만을 ‘진짜 북유럽인’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소수종족 북유럽인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Wikan, 재인용, Gullestad 53).

가성에 천착하도록 유도한다(김태환 187).

모순된 태도가 엿보이는 이 작품에서는 여러 모티프들(한국, ‘비유럽적 신체,’ 다수자와 및 소수자화, 정체성 탐색, 모성)이 양면성을 띠면서 반복되며 명쾌한 해석을 불허한다. 그는 작품의 말미에 “나는 출생국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입양인들이 나와 비슷한 느낌을 머금었을 것이라 본다. 복잡하거나, 묘사하기 어렵거나, 구조화가 안 되어 있거나,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인상”(Jag tror att de flesta adoptivbarn som någon gång reser till sitt ursprungsland erfar samma känslor som jag, ohanterliga, svårbeskrivna, oformulerade, ändå tydliga)(Trotzig, *Blod* 278) 속에서 입양인들이 출생국에서 양가적 인상을 받기 쉽다고 피력한다.

입양인들은 고아였던 자신을 양육해준 양부모의 우려를 현실화시키지 않으려 한다(Kim 121). 하지만 입양국에 안착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입양인들의 기저에는 입양되기 전의 인생도 중시하는 심정이 있을 수 있다. 입양인들은 친생부모와 한국을 자신의 일부로 간직하려 한다. 트롯찌는 한국과 결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롯찌의 글쓰기는 한국과 스웨덴, 생모와 양모,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보고한다. 트롯찌는 두 세계를 가로지르는 경계인의 한계뿐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펼친다. 다수자화²⁷를 위한 욕망 속에서도 그는 국외입양이나 스웨덴 사회의 이면을 직시하며 ‘거의 같지(만은) 않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27. 도르테 스타우네스(Dorthe Staunæs)는 다수자 포괄적 접근법(majority-inclusive approach)을 통해 어떻게 개별 주체들이 소수자적 특질을 지닌 ‘타자들’과 자신들을 구별 짓기 위해 수행성을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기득권과 인종적 무표성(인종적 다수자에 속하기에 익명성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을 확보하기 위해 서구에서 소수종족 구성원들은 다수자화를 추구한다(155). 한국 태생 입양인들 중 일부는 유럽식 이름이나 백인 다수자들과 동일한 민족정체성, 백인 부모 슬하에서 성장했다는 친족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을 백인들과 동계에 놓으려 노력한다.

그것은 단지 ‘관심이 있다’는 차원이 아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이다.

Det handlar inte enbart om “interesse”.

Känsloerna kring Sydkorea är ambivalenta. (Trotzig, *Blod* 103)

트롯찌는 한국에 대한 감정을 단순히 관심의 유무로 일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입양인들은 입양국과 출생국에서 공히 특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 받는다. 반면, 출생국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입양인들은 출생국인 한국을 전적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상태는 한국에 대한 양가적 감정으로 표출된다. 두 개의 국민국가의 경계에서 있는 국외 입양인들의 입양에 관한 발화는 특별한 독법을 불러일으킨다. 탈영토화된 그의 삶은 글쓰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입양국과 출생국 독자들 모두에게 흡족하게 읽히지 않는 ‘불편한’ 작품으로 귀결되었다.²⁸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 트롯찌가 보여준 문학적 행보는 그에게서 한국 탐색이 지속된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출판한 지 6년 후 발표한 수필 「한국에 관한 노트들」(*Anteckningar om Korea*)에서 입양기관에 방문해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위탁모를 찾는 일화를 서술한다(16-27). 이 글에서 흥미로운 것은 트롯찌가 자신과 대별되는 한국 출신 입양인의 글을 빌어서 한국에 관한 생각을 우회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이다.

트롯찌가 위의 글에서 소개하는 에릭 부르네고드(Erik Brunnegård)는

28. 스웨덴의 독자들은 작품의 전반부에 서술된 인종주의 문제를 외면한 채 ‘실패한 뿌리 찾기’를 서술한 후반부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아둥수용국의 상대적 우월성을 입양인이 밝혀주는 텍스트로 평가한다. 반면, 한국의 독자들은 한국과 거리감을 두며 입양국 귀속을 바라는 입양인에게 부정적 인상을 가질 수 있다. Cf. 박정준, 「국외입양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인종주의 문제」, 『비교문학』 65 (2015): 153-54.

방한 입양인들이 적었던 199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 장기 거주한다. 한국어 단기간에 익힌 부르네고드는 한국인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다. 입국 초기 그는 관광객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스웨덴과 판이하게 다른 한국의 사회문화를 유쾌하게 관찰한다. 그러나 한국체류가 본격화되자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한다. 한국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완전한 한국인’이 되려 했던 그는 자신에게 스웨덴적 정체성도 외면하기 힘들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는 민족정체성이나 시민권, 친족관계에 대해 입양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과 스웨덴인이라는 복수정체성을 지닌 부르네고드는 두 국가를 자유자재로 횡단하는 이동성(mobility)을 얻기로 한다.

부르네고드의 글을 장황하게 인용한 트롯찌는 그를 한국과 스웨덴을 매개하는 이행대상(transitional object)으로 삼는다. 이행대상은 ‘나’와 ‘내 밖’의 세계가 연결되도록 이끌어주는 상징이다(이만우). 트롯찌는 부르네고드를 통해 주관적으로 한국을 이해했던 상상계 차원에서의 한국 탐색을 탈피한다. 그는 보다 외부와 연결돼 있는 한국행을 모색한다.

트롯찌는 이 수필에서 데뷔작 『피는 물보다 진하다』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 그는 친생부모 상봉이나 한국정체성 발견으로 귀결되는 여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술회한다. 그는 한국에 직접 발을 디더서 개인적인 추억을 쌓음으로써 한국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데 여행의 의미를 둔다.

나의 최초의 한국여행은 다른 이들과 무엇인가 전적으로 달랐다. 더욱 좋지도 더욱 나쁘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 혼자였다. 나는 혼자서 외국을 방문했다. 나는 한국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으며,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감내했는데, 내게는 따라야 할 일정표가 없었으며 관광 지도도 없었다. 내가 태어난 부산에 갔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친생가족을 찾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펼치지 않았다. 나는 한국에 있어봤다.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나의 여행이 유일한 목적

이었다. 나는 한국에서 개인적인 추억을 쌓기를 바랐다. 나는 한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곳이 덜 이상하게 느껴지기를 원했다. 나는 사방 거리를 걷고 싶었으며, 내가 다른 이들과처럼 보이게 되기를 회고했다.

Min första resa till Korea var något helt annat än min andra. Varken bättre eller sämre, bara annorlunda. Den gången reste jag privat. Jag reste ensam, till ett främmande land. Jag visste ingenting om Korea, ingen visste vem jag var, jag gjorde vad som föll mig in, det fanns inget schema att följa, ingen utstakad rutt. Jag reste till Pusan, där jag är född, men gjorde inga som helst försök till efterforskningar efter den okända biologiska familjen. Jag var där. Det var det viktigaste av allt. Den enda verkliga syftet med min resa. Jag ville få egna minnen från Korea, jag ville se detta land, göra det mindre främmande. Jag ville gå omkring på gatorna och se ut som alla andra. (“Anteckningar” 17)

트롯씨는 출생국에서 인습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이 여행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힌다. 입양인의 “귀환”에 대한 통상적인 기대가 충만하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여행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다.

트롯씨는 이후 스웨덴 라디오(Sveriges Radio)²⁹에서 발표한 원고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에 답아냈던 것보다 인종문제에 관해 진전된 시각을 제시한다. “나는 이 나라에서 인종적 다수자에 속한 느낌을 알지 못한다. 그것에 경험 부족”(jag vet inte hur det känns, att tillhöra den etniska

29. 1925년에 개국한 스웨덴 라디오(Sveriges Radio AB)는 국영방송국으로서 일체의 상업광고가 금지된 것 등 공익 성격이 강하다. 스웨덴 라디오에서는 스웨덴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아랍어와 쿠르드어, 영어 방송도 내보내고 있다.

majoriteten i mitt hemland, det är en erfarenhet jag saknar)(“Läs Astrid”)이라며 그는 글을 시작한다. 트룟찌는 인종주의 문제를 외면하는 백인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스웨덴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종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 서열화된 인종 위계를 구축한 백인들의 책임의식과 개선의지가 급선무라고 그는 주장한다. 스웨덴에서는 소수의 극우 인종주의 집단을 제외하면 자국에 인종주의자들이 희귀하다고 낙관하는 시각이 보편적이다(Hällgren 323). 인종주의에 관한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신봉하는 스웨덴에서 유색인종 스웨덴인들은 인종주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룟찌는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천명하며 자신만의 글쓰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유색인종 입양인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인종주의를 경험한 그는 백인들과 결코 똑같지 않은 경계인의 시선을 다의적 독해가 요구되는 글쓰기로 풀어낸다.

이 작품에서 트룟찌는 한국과 스웨덴 사이를 무단히 횡단하며 이항대립적인 경계를 사이에서 불완전한 타협점을 모색한다. 트룟찌의 한국 방문은 탈주의 흥분으로 시작되지만 곧 환멸을 초래한다. 한국에서 소외감을 느낀 그는 탈영토화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도 트룟찌는 한국과 단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묘하게 드러내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한국방문은 추가적인 여행을 추동하는 역설적인 동기가 된다.

IV. 나가며

트룟찌는 국외 입양인들 사이에서 한국방문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한국을 방문한다(Kim 13). 그는 한국인들과 동질성을 확인하려는 바람과 동시에, 자신이 결코 ‘그곳’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모순된 목적으로 한국을 여행한다. 그는 한국에서 가급적 보고 듣고 말하는 활동을 자제하며 한국에 친숙해지는 것을 차단한다. 한국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

기반한 ‘두렵고도 낯선’ 감정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상화를 부추긴다. 하지만 여행 이후 여전히 스웨덴에서 안락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는 한국이 주는 의미를 고찰한다. 이러한 트롯찌에게 한국은 절실함을 담지한 또 다른 ‘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흡족하지 않았던 여행의 아쉬움을 그는 새로운 한국행을 모색하며 감내한다.

‘실망스러운’ 한국행은 궁극적으로 경계인으로서의 자아를 재구성해주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국화 된’ 스웨덴 입양인의 삶을 이행대상으로 삼은 트롯찌는 상상계적인 한국 탐색에 국한되었던 태도를 탈피하려 한다. 그의 작품은 여러 대립쌍들이 갈등을 거듭하다가 길항하는 면모를 드러낸다. 한국 방문을 전후해서 고향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그의 의지는 단일한 고향을 갖지 않는 것이 입양인 한국 방문의 숨겨진 목적임을 방증한다.

Works Cited

- Castañeda, Claudia. *Figurations: Child, Bodies, Worlds*. Durham, NC: Duke UP, 2002. Print.
- Cheng, Vincent J. *Inauthentic: The Anxiety over Culture and Identity*. New Brunswick, NJ: Rutgers UP, 2004. Print.
- Dorow, Sara K. *Transnational Adoption: A Cultural Economy of Race, Gender, and Kinship*. New York: New York UP, 2006. Print.
- Eng, David L. "Transnational Adoption and Queer Diasporas." *Social Text* 21.3 (2003): 1–37. Print.
- Essed, Philomena, and Sandra Trienekens. "'Who Wants To Feel White?' Race, Dutch Culture and Contested Ident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31.1 (2008): 52–72. Print.
- Gullestad, Marianne. "Invisible Fences: Egalitarianism, Nationalism and Racism."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8.1 (2002): 45–63. Print.
- Homans, Margaret. "Adoption Narratives, Trauma, and Origins." *Narrative* 14.1 (2006): 4–26. Print.
- Howell, Signe. *The Kinning of Foreigners: Transnational Adoption in a Global Perspective*. Oxford, UK: Berghahn Books, 2007. Print.
- Hällgren, Carola. "'Working Harder to Be the Same': Everyday Racism among Young Men and Women in Sweden." *Race, Ethnicity and Education* 8.3 (2005): 319–42. Print.
- Jerng, Marc C. *Claiming Others: Transracial Adoption and National Belonging*. Minneapolis, MN: U of Minnesota P, 2010. Print.
- Jin, Tae-Won [진태원]. "Eotteon Sangsangui Gongdongche? Minjok, Gungmin Geurigo Geu Neomeo" [Which Imagined Community? Ethnie, Nation and Beyond,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Yeoksabipyaeong* [The History Review, 역사비평] 96 (2011): 169–201. Print.
- Kim, Eleana J.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UK: Duke UP, 2010. Print.
- Kim, Tae-Hwan [김태환]. "Gujojuuijeok Banbok Gaenyeomui Munhagironjeok Hamui" [Der strukturalistische Wiederholungsbegriff im Literaturtheoretischen Kontext, 구조주의적 반복 개념의 문학이론적 함의]. *Dogireomunhwagwonyeongu* [Zeitschrift für Deutschsprachige

- Kultur & Literaturen, 독일어문화권연구] 18 (2009): 181–210. Print.
- Lee, Man-Woo [이만우]. *Munhakbipyeyongyongsajeon* [Glossary of Literary Theory, 문학비평용어사전]. Ed. Hangukmunhakpyeongrongahyeophoe [Korea Literature Critic Association, 한국문학평론가협회]. Naver, 1 Jan. 2006. Web.
- Lee, Seok-Gu [이석구]. “Kureishiui *Gyoei Bucheowa* ‘Jaеinjongwha’ Munje” [Kureishi’s *The Buddha of Suburbia* and the Issue of “Re-ethnicization,” 쿠레이쉬의 『교외의 부처』와 “재인종화” 문제]. *Yeongeoyeongmunhak*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영문학] 54.2 (2008): 263–79. Print.
- Lind, Judith. “‘As Swedish as Anybody Else’ or ‘Swedish, but also Something Else’?: Discourses on Transnational Adoptee Identities in Sweden.” *Adoption & Fostering Journal* 36.3 (2012): 85–96. Print.
- Melosh, Barbara. “Adoption Stories: Autobiographical Narrativ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Adoption in America: Historical Perspectives*. Ed. E. Wayne Carp. Ann Arbor, MI: U of Michigan P, 2002. 218–45. Print.
- Myong, Lene, and Michael Nebeling Petersen. “(Un)liveabilities: Homonationalism and Transnational Adoption.” *Sexualities* 0.0 (2014): 0–17. Print.
- Nam, Jeong-Ae [남정애]. “Natseom Geurigo Eogapdoen Nachigeum — Peuroiteujeok Gwanjeomeseo Salpyeobon Hopeumanseutarui *Andeureaseu* e Sumgyeojin Iyagi” [The Uncanny and the Suppressed Familiarity—An Exploration of the Hidden Story in Hofmannsthal’s *Andreas*, 낯섦 그리고 억압된 낯익음—프로이트적 관점에서 살펴본 호프만스탈의 『안드레아스』에 숨겨진 이야기]. *Dogilmunhak* [German Literature, 독일문학] 15 (2010): 83–99. Print.
- Novy, Marianne. *Reading Adoption: Family and Difference in Fiction and Drama*. Ann Arbor, MI: U of Michigan P, 2005. Print.
- Park, Jeongjun [박정준]. “Gugoeibyangingdeurui Jakpume Natanan Injongjuui Munje” [The Problem of Racism in the Works of Korean-Born Adoptees, 국외입양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인종주의 문제]. *Bigyomunhak* [Comparative Literature, 비교문학] 65 (2015): 135–59. Print.
- . “Hanguk Taesaeng Ibyangingdeurui Jakpume Natanan Moseongui Haechewa Jaeguseong” [The Search for and Reconstruction of

- Motherhood in the Works of Korean-Born Adoptees, 한국 태생 입양인들의 작품에 나타난 모성의 해체와 재구성]. *Feminism Yeongu* [Issues in Feminism, 페미니즘연구 15.1 (2015): 99–127. Print.
- Park, Seon-Young [박선영]. *Melanie Kleinui Jeongsinbunseokgwa Adongjeongsinbunseogui Yeoksa* [Melanie Klein's Child Psychoanalysis: A Critical Reconstruction of Theory and Clinical System,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과 아동정신분석의 역사]. Diss. Ehwayeojadaehakgyo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2011. Print.
- Rasmussen, Kim Su, and Eli Park Sørensen. "The Temporality of the Late Arrival: Fanon, Trenka, and the Question of Returning." *Yeongeoyeongmunhakyeyongu* [Journal of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영문학연구 53.2 (2011): 301–24. Print.
- Sloth, Kirsten Hoo-Mi. "Whose Perspective and What Issues." *Outsiders Within: Writing on Transnational Adoption*. Ed. Jane Jeong Trenka et al. Cambridge, MA: South End Press, 2006. Print.
- Sørensen, Eli Park. "Desire and Censorship in Astrid Trotzig's *Blod är tjockare än vatten*." *Segyemunhakbigyoyeongu*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omparative Literature, 세계문학비교연구 37 (2011): 543–67. Print.
- Srivastava, Sarita. "'You're Calling Me a Racist?' The Moral and Emotional Regulation of Antiracism and Feminism." *Signs* 31.1 (2005): 29–62. Print.
- Staunæs, Dorte. "From Culturally Avant-garde to Sexually Promiscuous: Troubling Subjectivities and Intersections in the Social Transition from Childhood." *Feminism Psychology* 15.2 (2005): 148–67. Print.
- Strauss, Leo. *Persecution and The Art of Writing*. Chicago: U of Chicago P, 1988. Print.
- Trotzig, Astrid. *Blod är tjockare än vatten*. Falun, Sweden: Albert Bonniers Förlag, 1996. Print.
- _____. "Anteckningar om Korea." *Hitta hem: vuxna adopterade från Korea berättar*. Stockholm: Ordfront Förlag, 2003. Print.
- _____. "Läs Astrid Trotzigs text." *Sveriges Radio*, 9 Feb. 2012. Web.
- Verrier, Nancy Newton [베리에, 낸시 뉴턴]. *Weonchojeok Sangcheo: Ibyang Gajokui Seongjangeul Wihan Counselling* [The Primal Wound: Understanding the Adopted Child, 원초적 상처: 입양 가족의 상처를 위한 카운슬링]. Trans. Puriuijib [뿌리의 집]. Seoul [서울]: Puriuijib [뿌리

리의 집, 2013. Print.

Yngvesson, Barbara. "Going 'Home': Adoption, Loss of Bearings, and the Mythology of Roots." *Social Text* 74 (2003): 7–27. Print.

———.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Chicago: U of Chicago P, 2010. Print.

Abstract

A Transnational Adoptee's Ambivalent Desire to Visit Her Birth Country: A Study on Astrid Trotzig's *Blood is Thicker Than Water*

Jeongjun PARK (Chungang University)

Astrid Trotzig's autobiographic novel *Blood is Thicker Than Water* is worthy of notice among numerous prevalent "roots trips" of adoptee writers so far. This paper claims that Trotzig wants to be disappointed with her Korean visit in some respect. Concerning Korea, she feels a sense of *unheimlich* during her stay, when she first acknowledges the distances created between her and Korea, which would remain from then on. Her ambivalent feeling towards Korea appears in her work in a form of ambivalent literary style. This paper endeavours to read "in" and "out" aspects of her work. Such research helps us understand the complex mentality of adoptees who are ambivalent toward their birth country. Above all, this paper tries to meet 'Europeanized' adoptee who is different from stereotyped adoptees introduced in Korean media.

Keywords: roots trip, ambivalence, *unheimlich*, Astrid Trotzig, assimilation, transnational adoptees

Jeongjun PARK is Lecturer at Chungang University. He is working within the field of transnational adoption, diaspora, translation and world literature. His main publications include: "The Search for and Reconstruction of Motherhood in the Works of Korean-Born Adoptees" in Korean (2015); "The Problem of Racism in the Works of Korean-born Adoptees" in Korean (2015). He is affiliated with The Institute for Global World Literature.

writext@naver.com

Received: 15 April 2015
Reviewed: 3 May 2015
Accepted: 6 May 2015